

광주·전남 수출입 기업 10곳 중 6곳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

광주상의, 자동차·부품·전기·전자·철강·금속 등 업종 모니터링 대금결제 지연·물류공급 차질 등 피해...“대응책 없다” 76.5%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기업 10곳 중 6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관련 수출입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지역기업 영향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직·간접적으로 교역을 하고 있는 3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

했으며, 자동차·부품, 전기·전자, 기계·금형, 철강·금속, 고무·플라스틱 등이 주요 대상 업종이었다.

대상 기업의 56.7%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10곳 중 6곳 정도가 수출입에 타격을 입은 것이다. 이외 나머지 43.3%는 ‘피해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주로 대금결제 지연·중단, 물류·공급 차질, 자금조달 애로 등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외에도 수출 중단 또는 거래 위축,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생활용품과 식품 등을 전량 러시아로 수출하는 한 지역 기업은 “2008년 금융위기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경제제재 조치에도 잘 버텼어 왔으나 이번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물류·공급망 마비와 경제제재로 인해 수출 대금 회수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국제 금융 리스크 확대도 자금조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응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직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76.5%)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상황 안정 시까지 거래 중단·보류’ (29.4%)를 답한 기업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지역 수출입기업들이 뚜렷한 대책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바이어·공급선 다변화’ (17.6%), ‘충분한 재고 확보’ (5.9%)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

했다.

사태 장기화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재’ (56.7%)와 ‘거래 위축’ (53.3%)을 가장 우려했으며, 이어 ‘대금결제 지연·중단’ (43.3%), ‘물류난 및 물류비 증가’ (26.7%), ‘유가·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26.7%), ‘환율 변동성 리스크 확대’ (23.3%), ‘부품조달 애로’ (13.3%) 등 순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으로는 ‘신속한 현지 정보 제공’ (46.7%)을 원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영안정 자금 지원’ (40.0%)과 ‘수출입 기업 피해보상’ (33.3%) 순이었다.

이외에도 ‘물류난 해결 지원’ (26.7%), ‘은행 자금 대출기한 연장’ (23.3%), ‘무역 보증제도 지원 확대’ (13.3%), ‘거래선 다변화(전시·상담회) 지

원’ (13.3%), ‘수출 상담·컨설팅 지원’ (10.0%)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발발하면서 대금 지급문제 및 유가·원자재가 불안 등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입 여건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금결제 지연·중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보전이나 신속한 현지 정보 제공,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광주지역 FTA활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들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수출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또 연기

사측 요청 회계감정 시일 더 소요...5월 25일 열려

금호타이어의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22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23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5월25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연기된 것에 이어 3번째다. 금호타이어 측이 법원에 요청한 회계감정에 시일이 더 소요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 또는 오는 5월 나올 것으로 보였던 최종 선고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금호타이어 노사뿐 아니라 지역 경제계까지 주목하는 재판이다. 앞서 2013년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A씨 등 5명은 사측을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에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회사 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信義則)을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의 추가 임금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

해 회사측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신의에 반하고 용인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신의칙에 대한 엄격한 시각을 드러내면서 직원들이 청구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3000여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통상임금으로 예상되는 2133억원을 지급하게 될 수 있다. 오는 2023년 말 1조원대 대규모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데다, 2000억원이 넘는 말린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칫 지급불능(디폴트) 사태에 이를 수 있다고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호남권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

익산국토관리청, 610개소 대상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지역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설공사의 안전·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년 530개소 대비 15% 상당 증가한 610개소로, 도로·수자원·철도 및 초고층 건축물 등 취약 공종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3~4월) 동결·용해, 우기

(5~6월) 집중호우 및 동절기(11~12월) 콘크리트 품질·화재사고 등 계절별 취약공종 210개소와 관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50억 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 공공 발주 사업 등 282개소이다. 이들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상시 점검한다.

또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고층 아파트, 건축물 해체현장, 타워크레인 및 물류창고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 118개소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중 부실시공 우려나 다수 민원이 접수된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익산국토

청, 고공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매달 고강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추락, 깔림, 협착 등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익산국토청, 광역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이 합동으로 반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최근 아파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09건을 적발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호남권 건설현장의 선제적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경력자 국민감시단(24명)을 통해 민간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컨설팅을 확대 운영(120~240개소)하고, 공공 소규모 건설현장에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예방형 안전교육도 시행(60개소)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송중욱(왼쪽)은 은행장과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 21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조폐공사 카드형 지역화폐 협약

전남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발행됨에 따라 광주은행이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송중욱 은행장과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 21일 동구 대인동 은행 본점에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출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서비스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5월 전남지역 각 자치단체별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이 출시된다. 이들 상품권은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차크(chak)'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앱을 이용하면 가상계좌나 은행계좌를 연결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규약(바코드)을 촬영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결제 가능하다.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상품권을 선물하거나 지역 상품권 할인구매도 할 수 있다. 지문과 비밀번호 등록을 통해 보안성도 높였다.

전남지역에서는 현재 여수섬섬페어와 여수사랑상품권을 이 앱에서 구매·이용할 수 있다.

송중욱 은행장은 “지역민과 고객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급 및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일으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LH, 광주·전남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내달 4~15일 접수...시중 시세의 30~40% 수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광주·전남지역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 등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LH가 신규 주택 매입이나 해약세대 발생 등의 사유로 공가 발생함에 대비해 진행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향후 입주가능 주택이 발생할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공고의 총 모집세대는 2069세대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는 총 1778세대로 광산구 300세대, 북구 830세대, 동구 2세대, 서구 304세대, 남구 342세대 등이다. 전남은 전남 291세대로 나주 56세대, 목포 160세대, 순천 50세대, 광양 25세대 등이다.

모집대상은 이달 23일 현재 해당 시·군·구(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달 4일부터 15일까지로,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비트코인 2.94% 상승...5160만원대 거래

22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며 516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20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165만9000원으로, 24시간 전보다 2.94% 올랐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2.98% 오른 5162만6000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국내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은 3% 중반대 상승률을 보이며 363만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더리움의 채굴 방식 변경 작업이 수개월 안에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작업증명방식(Proof of Work)으로 채굴되는 이더리움을 지분증명방식(Proof of Stake)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테스트

트가 지난 15일 개시됐다.

기존 방식은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크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업그레이드가 성공하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테스트는 큰 문제 없이 수월히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10.00 (+23.95)
↑ 코스닥	924.67 (+6.27)
↑ 금리(국고채 3년)	2.399 (+0.131)
↑ 환율(USD)	1218.10 (+1.80)



롯데백화점 광주점 5층에 지난 21일 새로 문 연 스포츠 브랜드 '카파' 매장. <롯데백화점 제공>

“젊은 고객 모셔라” 롯데백 광주 스포츠 매장 새단장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올 들어 스포츠 매장 새단장에 나서며 젊은 고객 모시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21일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카파' 매장이 점포 5층에 새로 열렸

다고 22일 밝혔다.

이 매장은 개장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 동안 5만원 이상 구매하면 휴대폰 손잡이

(그립톡) 100개를 선착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12월 기존 나이기 매장을 7배 확대 조성한 496㎡(150평) 규모 '나이기 메가샵'을 같은 층에 열었다.

올 1월에는 영업면적을 기존보다 10평 정도 늘린 '르꼬끄스포츠' 매장을 선보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